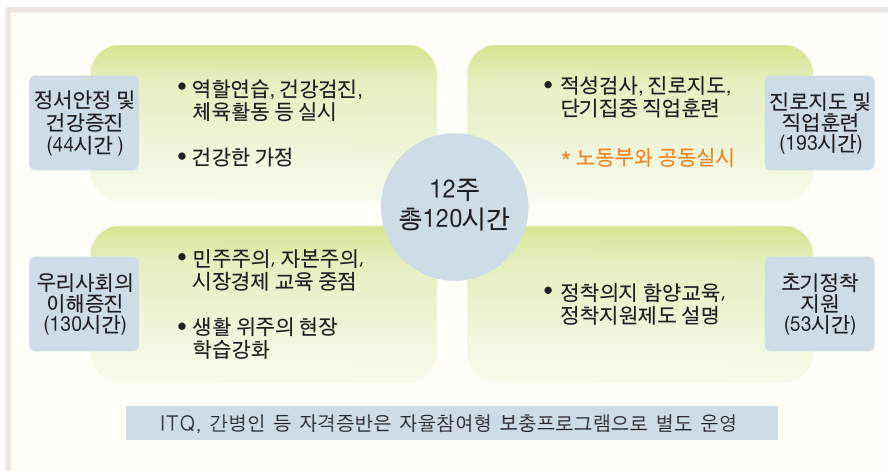




하나원 모습

증 취득을 지원하고, 여성의 증가 상황을 감안해 성별 특화교육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교육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과목을 정규시간 외에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으로 편성해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였다.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은 각종 자격증반, 취업설명회, 운전 등 본인의 희망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하나원 교육생 컴퓨터 교육 실시

2010년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제고가 중점 과제로 선정되면서, 하나원은 현행 교육기간내에서 하나원의 직업훈련 과정을 실용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직종 탐색 위주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에 적합한 ‘단기집중 직업훈련’ 과정으로 전환해 교육생이 하나원 수료 후에 즉시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6년 5월부터 운영해오던 기초 직업적응훈련이 훈련 직종 선택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취업을 향상에는 그 성과가 미미해 2010년 5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희망사항, 노동시장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관련 직종에서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전 직무훈련인 ‘단기집중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단기집중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교육생은 본인의 적성에 맞는 1개의 직종을 선택해 76시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다. 또한 교육생과 중소기업의 구인구직 만남의 장인 취업박람회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개설하였다.

하나원에서는 진로, 심리, 의료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진로·심리상담실 및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진로상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교육생의 진로지도를 강화하였으며, 「하나의원」에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여성 교육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였다. 2010년에는 하나의원 전면 리모델링 및 간호인력(1명) 충원을 실시하여 현재 하나의원은 내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5개 진료과목에 공중보건의 7명 및 간호인력 6명 등 총 13명의 의료진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응교육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민간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하나의원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생들의 정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 예술공연, 법률상담, 영어학습, 이·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치과진료분야에서는 열린치과의사회 등 자원봉사 단체들이 교육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남성 성인반, 여성 성인반, 경로반, 청소년반, 아동반, 유치반 등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하나의원 분원을 설치하여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은 2009년 9월 30일 개교한 하나의원 내



하나둘학교 수업장면



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하나돌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에는 인근 초등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개원 이후 2010년 6월까지 총 1만 7,000명이 하나원을 수료하였다.

개원 10주년 행사 개최

하나원은 2009년 7월 8일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마다 개원 기념식을 비교적 소규모로 비공개리에 개최하여 왔으나, 개원 10주년을 맞아 하나원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10주년 기념행사를 공개적으로 확대하여 개최기로 하였다.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하나원을 처음으로 외부 언론매체에 개방하여 하나원이 걸어왔던 과정과 역할, 미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나원 개원 10주년 행사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기념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문수 경기도 지사, 전직 통일부 장·차관, 통일교문, 각종 사회단체 단체장, 기자 등 약 470명이 참석하여 하나원 개원 10주년을 축하해 주었다.

개원 10주년 기념식 개최는 기념식→경과보고→기념행사→시설순시→오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기념행사에는 하나원 출신 첫 출생 아이, 첫 결혼 정착자, 3대 거주가족 소개 동영상 상영 및 무대 인사를 시작으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의 연주, 성악가 및 합창단의 독창·중창이 이어졌고, 하나원 교육생 및 기 수료생의 바램을 담은 편지 낭송과 참석자 모두의 합창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밖에도 하나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통일부 외신기자단 방문, 하나원의원 개원 5주년 의료 세미나, 하나원 수료생 홈커밍데이 행사, 기념 학술회의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다. 제2하나원 건립 추진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급증 추세 등 유동적 상황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정착지원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하나원 건립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 민간단체 등에 의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탈북시설 확충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하나원은 2010년 3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 강원, 충남북 4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24개 후보지를 현장 실사 후 비교 검토하여 강원도 화천군 소재 부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동 부지의 선정기준으로는 건축공간 가능성, 교육훈련 기반 접근성, 지역사회 호응과 협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제2하나원은 5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은 물론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남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 자문 내용을 건축물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년도 부지매입과 설계를 시작으로, 2011년초 제2하나원을 착공하여 2012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라. 정착지원 강화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지원금, 지역적응교육,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1) 정착지원금 지급

정착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을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2010년 6월 현재 정착금은 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노력 및 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가산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그 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 600만원이고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 1,900만원이다. 장려금은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거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2009년에는 장려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요건을 6개월에서 500시간으로 조정하고, 취업장려금 지급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완화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취업장려금을 각각(1·2·3년차) 100만원씩 상향 조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이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2,440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300만원 증액되었다.

장려금 지급기준

구 분		기 준		금액	
장 려 금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120만원	
			500시간 ~ 1,220시간		120 ~ 240만원 (120시간당 20만원 증액)
			500시간 ~ 1,220시간		120시간당 20만원 (최대 120만원)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만원	
	자격취득장려금		1회 限	200만원	
	취업장려금		1년차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신청시 250만원 지급	55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650만원
총액 (최고액)				2,440만원	

※ 취업장려금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2005년 5월 사회진출자)부터 대상